

전국 품질관리업소 대표자 회의 열려

- 잡화벌꿀 품질 기준엔 각자 입장 달라
- 업소당 100만원 이상 거출, 자조금 사업에 적극 참여



한국양봉협회는 지난 2월 13일 제 2축산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전국 품질관리업소 대표자회의를 열고 배경수 회장과 업체 대표간 상견례 및 벌꿀 품질관리와 양봉자조금사업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

배경수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“업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양봉업계가 잘 되도록 노력한다면 협회에도 판매업소의 제품들이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”며 하나로 뭉쳐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자고 강조했다.

또한 배 회장은 “협회 임원 및 직원까지 자조금 사업에 동참기로 했다”며 “업계 발전을 위해 품질관리업소에서도 자조금 사업에 동참해달라”고 역설했다. 이에 품질관리업소 대표들은 각 판매업소 사정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극 참여하겠다고 자조금 동참 의사를 밝혔다. 이에따라 품질관리업소 자조금 거출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결정됐다.

한편 이날 또 다른 협의 사항인 벌꿀 품질관리 개선은 잡화벌꿀의 품질관리에 대해 각자 입장이 달라, 하나된 의견을 내놓지는 못하였다. 이에 따라 협회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고려하여 향후 품질관리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. **양봉**